사료 부문의 안정적 수익과 소재의 확장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가는 생명과학 기업

– 국내 최초로 감미제 시장 개척 및 원료 가공 전문 공장 설립
– 국내 최고의 엄선된 제품만 선보여 … 스트레스 토털 솔루션 'ML–FI(엠엘–에프원)', 자돈의 장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식이섬유 고농축 기능성 섬유소 '옵티셀(OptiCell®)'
– 미래의 핵심동력은 사람과 소재 … 축산을 넘어 종합식품회사로!!

(주)미래생명자원



인류에게 필요한 가치를 제공하는 생명공학 기업, 사람과 동물, 모두의 건강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주)미래생명자원(대표이사 김성진)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념 하에 1997년 설립된 회사이다.

고객과 함께 풍요로운 미래를 개척해 온 (주)미래생명자원이 올해로 정확히 창립 25주년이라는 뜻깊은 한 해를 맞았다. 창립 초기에는 사료 관련 원료 및 소재를 단순 아웃소싱하여 공급하는 회사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15년 전부터 자체 제조설비, 해외법인 설립, 그리고 (주)미래생명자원의 꿈인 신소재 연구소를 설립하여 사람과 동물 모두의 건강에 필요로 하는 소재 개발 및 생산을 하고 있다.

중국 및 싱가포르에 현지 법인을 운용하면서 다국적 판매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싱가포르 법인은 사료 원료 자원 개발과 공급에 앞서 나가고 있다.

국내 최초로 감미제 시장을 개척한 미래를 만드는 소재 전문기업

(주)미래생명자원은 자체 연구소 및 시험농장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소재 개발과 검증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소재의 독자적인 개발은 물론 5년 전부터는 외부에서 기술 및 소재를 라이선스하여 제품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외부 소재와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한 방법이다.

(주)미래생명자원은 축산, 사료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밸류체인(Value chain)을 가지고 있어 각 단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단계에 와 있다. 회사의 다수 인력들이 사료회사의 배합비 담당자, 각 축종별 R&D, 품질관리 출신들이어서 어느 회사보다 사료산업의 이해도가 높은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사료 첨가제는 회사가 직접 개발한 소재(GABA 등 스트레스 완화)와 해외에서 검증된 우수한 첨가제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프리믹스를 사료공장 및 대군농장에 공급하고 있다. 부원료(타피오카, 소맥피, 팜 등) 등은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서 직접 소싱하여 국내 및 동남아시아에 직접 판매하고 있다.

(주)미래생명자원은 대군 양돈장과 업무협약을 통한 제제의 공동개발과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산란계 농장과 기능성 계란 개발 및 판매를 자체 운영 중인 GP 센터를 활용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감미제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고 원료 가공 전문 공장을 설립하여 국내 사료 및 양돈산업에 이정표를 세워 왔다고 자부하는 (주)미래생명자원은 기호성 개선제인 향 · 감미제, EP 가공 기술을 통한 다양한 가공 원료를 공급하여 양돈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 (주)미래생명자원은 국내 최초 · 최고의 제품을 국내 시장에 접목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 (주)미래생명자원의 다양한 제품군

스트레스 토탈 솔루션 'ML-F1(엠엘-에프원)'

가바(Gamma aminobutyric acid, GABA)는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원료로 잘 알려져 있다. 1950년 미국의 신경과학자 유진 로버츠(Eugene Roberts)에 의해 발견된 가바는 포유류의 중추신경계(CNS)에 주로 존재하는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이다. 가바는 여러 연구를 통해 뇌파를 안정시켜 흥분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성장 호르몬 분비 촉진, 혈압 및 혈당의 정상화, 면역력 강화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원료인 가바를 주원료로 하여 자체 생산한 'ML-F1'

'ML-F1'은 (주)미래생명자원이 이러한 가바(GABA)를 주원료로 하여 자체 생산한 제품으로 가축이 느끼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원천 봉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신경전달 기전의 조합에 의해 긴장, 초조, 불안감 등 스트레스 반응을 현저히 감소시킴으로써 가축의 생산성 증가 및 건강한 성장을 추구하는 제품이다. 'ML-F1'은 합성 가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체 특허 균주를 이용하여 발효 생산한 천연가바를 사용하여 체내 잔류나 다른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급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산된 가바는 식품 등급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더욱 믿고 사용할 수 있다.

스트레스 완화제 'ML-F1'은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켜 생산성을 개선한다. 이유자돈에게 급여 시 일

(주)미래생명자원

당증체량 최대 15.7% 증가, 생존율을 최대 2.1%까지 증가시키며, 모돈과 자돈에게 급여 시 스트레스 지표인 Cortisol이 모돈에서 5% 감소, 자돈의 이유체중이 6.8% 증가한다. 또한 밀사 스트레스로 인한 자돈의 꼬리물기 및 귀 물기가 감소한다.

쓴맛이 없는 깔끔한 끝맛, 수용성 농축 감미제 'Hydro-50'



▲ 쓴맛이 없는 깔끔한 끝맛을 자랑하는 수용성 농축 감미제 'Hydro-50'(사진은 ML-F1, Hydro-50, 알리오-킹 공통 지대)

쓴맛이 없는 깔끔한 끝맛을 자랑하는 'Hydro-50'은 쓴맛 수용체를 완벽히 차단하여 단맛만 지속되며 소량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용성 농축 감미제이다.

'Hydro-50'의 PANCORE는 쓴맛 수용체 자극 없이 단맛 수용체만 오랫동안 활성화하여 사카린의 쓴맛을 차단하고 경제성 원료의 기호성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침전물 없이 깨끗하게 녹아 습식사료 및 음수 투여제로 이용이 가능하며, 상온의 물에서도 잘 녹아 계절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한 완벽한 용해성을 발휘한다.

일반적인 감미제보다 단맛 지속기간이 길며, 쓴맛 지속시간보다 길게 유지되어 남아있는 쓴맛도 마스킹한다.

'Hydro-50'의 특장점은 5S로 정의할 수 있는데 △Sweet(고당도 감미제), △Strong(설탕보다 150배 이상의 단맛), △Sugar(설탕처럼 부드러운 맛), △Stable(높은 균질성으로 사료 배합 용이), △Saving(소량으로도 충분한 감미 효과)으로 탁월한 기호성을 발휘한다.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1:1 비율로 결합된 고함량의 유기태 미네랄 제품 'BTRAXIM'

아미노산(Glycine)과 미네랄이 1:1 비율로 결합된 고함량의 유기태 미네랄 제품인 'BTRAXIM'은 무기태 미네랄과 달리 흡수 경쟁을 하지 않고 이온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소량 첨가에도 가축에게 결핍되기 쉬운 미네랄 흡수율을 높여 가축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분변 내 무기질 배출량 감소 및 우수한 생체이용성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 타사 유기태 미네랄에 비해 pH, 수분, 온도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안정성이 뛰어나며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여 작업자 환경도 개선시킨다. 특허받은 IFT 제조공법을 이용하여 사료 배합 시 우수한 배합도를 기대할 수 있고 용해성이 우수하여 습식사료 및 음수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1:1 비율로 결합된 고함량의 유기태 미네랄 제품인 'BTRAXIM'

자돈의 장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식이섬유 고농축 기능성 섬유소 '옵티셀(OptiCell®)'

전형적으로 요즘 가축은 영양 요구량을 충족하기 위해 고영양학의 사료를 급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식단들은 전체적인 생리학적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가축은 최적의 건강과 적절한 소화기능을 위해 식이섬유가 필요하다.

'옵티셀(OptiCell®)'은 발효성+비발효성 식이섬유의 시너지 효과로 조합된 제품으로 신선한 나무로 제조된 천연 제품으로 광범위한 제조 공정을 거쳐 50~120㎛의 미세한 입자 크기로 분쇄된 제품이다. 바로 이 공정이 제품을 생리적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 준다.



▲ 자돈의 장 건강 유지와 모돈의 분만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주는 제품인 '옵티셀'

이렇게 미세한 입자들은 미생물이 발효되기 쉽도록 넓은 표면적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리그노셀룰로오스의 비발효성 성분들은 장운동을 자극하여 최적의 장 연동운동을 지원해 준다. 이 성분은 변비를 예방하고 대장에서의 병원성 미생물 상승을 방지함으로써 설사로부터 가축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발효성 사료 성분은 대장에 도달해서 미생물을 위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역할을 한다. '옵티셀(OptiCell®)'의 발효성 성분은 선택적으로 유산균의 증식을 촉진한다. 이렇게 생성된 젖산(Lactic acid)은 병원균을 억제하고 후벽균(Firmicutes)에 의해 대사된다. 후벽균은 젖산을 뷰티르산(Bytyric acid)으로 전환시켜 주는데, 이것은 동물에 의해 재흡수되어 항염

증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다. '옵티셀(OptiCell®)'은 모돈의 분만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뿐만 아니라 장 융모 발달, 장 미생물 균총 개선 및 수분 재흡수를 통해 설사를 예방함으로써 가축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매우 다양한 효과들을 보여준다.

면역 부스터 복합식물추출제 'XTRACT® Nature'

'XTRACT® Nature'는 체내에서 효능이 입증된 천연활성물질인 고추(Capsicum oleoresin)와 강황(Turmeric oleoresin)만 선택 및 추출하여 micro-encapsulation시킨 복합식물 추출제이다. Capsicum은 염증반응을 억제하고, Turmeric은 바이러스의 농도를 낮춰준다.

▲ 체내에서 효능이 입증된
천연활성물질을 이용한 'XTRACT® Nature'

'XTRACT® Nature'는 장 내 존재하는 TRPV1 자극을 통해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준다. 자돈은 모돈의 초유를 통해서 면역물질을 획득하기에 모돈에게 급여할 경우 초유의 품질을 개선하여 자돈으로의 항체 전달률을 향상시켜 자돈의 생존 산자수 증가 및 폐사율 감소에 도움을 준다. 또한 자돈에게 급여할 경우 질병 또는 잠재성 질병 완화에 도움을 주고 병원균에 대한 과민반응을 억제하여 염증 발생을 감소시킨다.

냄새 한 가지를 제외하고 100가지 이로움이 있는 식품, 마늘을 발효한 제품 '알리오-킹'

우리가 알고 있는 마늘은 냄새 한 가지를 제외하고 100가지 이로움이 있는 식품이라고 하여 일해백리(日害百利)라고 불리운다.

항산화, 항균, 성장 및 대사 촉진, 면역 및 번식기능 향상 등 몸에 좋은 마늘을 발효한 제품인 '알리오-킹'은 기호성을 저해하는 마늘 특유의 맛과 냄새를 최소화하였다.

(주)미래생명자원

가장 최근에 출시되어 판매를 앞두고 있는 신제품 **'알리오-킹'**은 SAC(S-Allyl-Cysteine)의 작용으로 체내 활성산소 제거 및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산화스트레스 감소, 인슐린 조절 및 신장기능 개선, 간기능 개선 및 지방간 완화 효과가 있다. 또한 활성형 비타민 B1과 같은 역할을 하는 Allythiamine의 생성으로 신진대사 촉진 및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또 다른 성분인 Scordinin은 난자와

정자의 발육 증진, 세포 대사 촉진 및 유해성분 배출, 노화 방지와 성장을 촉진시킨다. 돼지의 적용방안이나 사용 효과는 곧 공개될 예정이다. 100가지 이로움이 있는 마늘을 발효한 제품 '알리오-킹'은 양돈농가들의 생산성 개선에 얼마만큼 일조할 수 있을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래의 핵심동력은 사람과 소재 … 축산을 넘어 종합식품회사로!!

(주)미래생명자원의 근간은 사료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해 왔으며, 이 부분을 고도화하고 소재의 해외 수출을 중요한 미션으로 두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식품 유통 브랜드 퓨어밀을 출범하고 케어 푸드 시장도 진출하면서 축산을 넘어 종합식품회사로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퓨어밀 사업부(계란 GP 및 일반식품), OptiPet 사업부(Pet), OptiHealth 사업부(건강기능식 및 건강보조식품) 3개 사업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어떤 회사에서도 찾기 어려운 (주)미래생명자원의 장점은 소재의 확장성 측면이다. 거의 대부분 인체 건강 소재들은 동물 소재로도 사용되고 있다. 물론 동물 소재 용도로 만든 소재는 절대 인체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인체 소재용으로 만든 소재는 동물 소재를 사용하는 데 어떤 제약도 없다. (주)미래생명자원은 2개 시장 모두에 회사가 개발하고 만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 및 소재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주)미래생명자원의 미래 핵심동력은 사람과 소재가 될 것이다.
인류에게 필요한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 사람과 동물,
모두의 건강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 세월이 지나도
(주)미래생명자원의 제품은 믿을만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주)미래생명자원 김성진 대표이사

(주)미래생명자원의 김성진 대표이사는 30대에 창업하여 현재까지 4세대가 지난 지금까지 회사를 뿌리 깊은 나무처럼 묵묵하게 지켜온 장본인이다. 김성진 대표이사는 오늘의 회사가 있기까지 피땀 흘리는 노력과 열정을 보여준 회사 식구들과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성진 대표이사는 "(주)미래생명자원의 미래 핵심동력은 사람과 소재가 될 것"이라며 "인류에게 필요한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 사람과 동물, 모두의 건강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 세월이 지나도 (주)미래생명자원의 제품은 믿을만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항상 새로운 시장에 도전을 멈추지 않은 (주)미래생명자원은 축산업의 존재 이유는 먹을거리 제공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두뇌 건강을 연구하는 생명과학 기업, 사람과 동물 모두의 건강에 기여하는 기업, 변화를 즐기며 도전하는 기업, 교육과 장학을 통한 가치의 공유를 실천하는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 나가고 있다. P&P

【취재 · 정리 / 백 경 현 기자】